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3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숫자	1	2	3	4	5	6	7	8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숫자	-1	-2	-3	-4	-5	-6	-7	-8

- ① 1, -5 ② -5, 4 ③ 5, -1
 ④ -4, -5 ⑤ -5, -4

2. (물음) 교양 프로그램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차 적응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
- ② 시차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 ③ 시차 적응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시계 활용법
- ④ 시차 적응을 위해 여행 중 삼가야 할 음식들
- ⑤ 시차 적응이 동쪽으로 여행할 때 더 어려운 이유

3. (물음) 이 대화에 이어질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긍정적 자세로 이겨내야겠구나.
- ② 누군가와 일을 같이 할 때는 그 사람과 보조를 맞춰야겠구나.
- ③ 주어진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려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겠구나.
- ④ 새로운 사람과 얘기할 때는 나의 말에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 봐야겠구나.
- ⑤ 본래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개입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두 토론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 ① 상황 인식도 다르고 해결책도 다르다.
- ② 상황 인식은 같지만 해결책은 다르다.
- ③ 원인은 다르게 파악했지만 해결책은 같다.
- ④ 원인은 같게 파악했지만 해결책은 다르다.
- ⑤ 해결책은 같지만 실천 의지의 강도는 다르다.

5. (물음) 두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자 토론자는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 ② 남자 토론자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감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 ③ 여자 토론자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여자 토론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⑤ 남자 토론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요약한 후,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미는 알을 나무껍질 속에 낳습니다. 이 알은 바로 부화하지 않고 다음 해 여름에 부화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벌레는 나무뿌리의 수액(樹液)을 빨아먹으면서 적의 공격 등을 피해 지나간 땅속 생활을 합니다. 애벌레는 비상을 꿈꾸며 짧게는 2~3년, 길게는 17년 정도를 땅속에서 지낸 후에야 비로소 성충이 됩니다. 보통 매미는 자연 상태에서 약 한 달을 살기 때문에 성충이 된 매미는 한 달 안에 짝짓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컷 매미는 암컷 매미를 유혹하기 위해 열심히 우는 것이지요. 짝짓기에 성공하면 암컷 매미는 알을 나무껍질 속에 낳습니다. 이렇게 자손을 퍼뜨리고 매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 ①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② 어떤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 ③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④ 일에는 해야 할 적절한 시기가 있으므로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 ⑤ 항상 자기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에 이를 수정, 보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7. <보기>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주제문 : 노인층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인층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자.

○ 예상 독자 : 지방 자치 단체 및 노인 복지 관련 단체

독자 분석	○ 지방 자치 단체는 사회적 여론에 민감하다. ○ 노인 복지 관련 단체는 노인층의 실생활에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전략 수립	○ 사회적 인프라 부족의 실상을 환기시킨다. ○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 노인층의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①
자료 수집	○ 국내의 노인층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상황을 외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② ○ 노인층의 사회 참여 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③
내용 선정	○ 사회적 인프라 부족의 실상을 부각하며,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④ ○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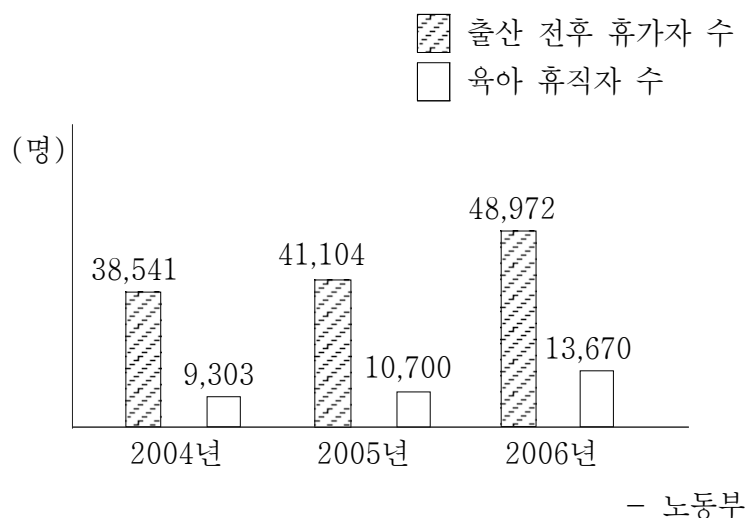
8. ‘여성 직장인 육아 휴직 제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OECD 회원국의 여성 취업 형태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한 뒤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았다. 한국의 기업은 관행적으로,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났다가 복귀한 여성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0년쯤 한국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 OECD 아시아 사회·보건 지원팀장

(나) 출산 전후 휴가자, 육아 휴직자 수의 변화 추이



(다) 육아 휴직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직장과 관련된 이유	대체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43.1%
	복직이 불안한 기업 관행 때문에	39.2%
개인적인 이유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되어서	10.2%
	제도를 잘 몰라서	3.9%
기타		3.6%

- ○○○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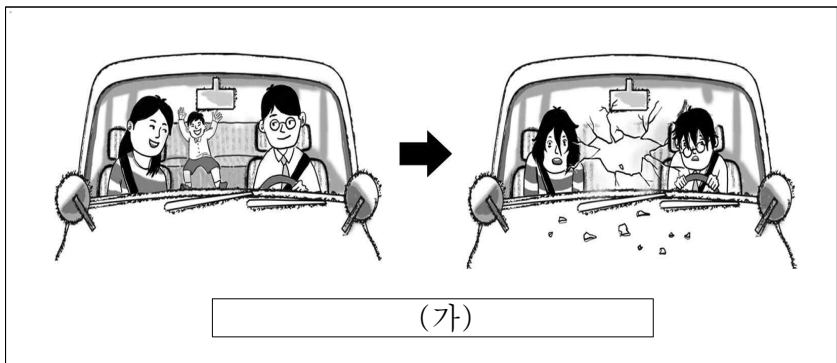
- ① (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육아 휴직 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이용이 모두 늘고는 있으나 육아 휴직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태를 제시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여성 직장인들이 육아 휴직을 이용하지 않는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직장과 관련된 이유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 ④ (나)와 (다)를 활용하여, 육아 휴직을 이용한 여성들이 그 효과에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옥외 광고물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하여 개요를 작성한 뒤, 자기 점검을 해 보았다. 수정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I. 서론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이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상황	
II. 본론	
1.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가. 현수막의 남용	㉠
나. 넓고 흉한 간판이 경관을 해침	
다. 도로에 설치한 입간판으로 인한 보행 방해	
2.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 운영	㉡
나. 도로에서의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 단속	㉢
다. 실용적이면서 미관이 뛰어난 간판 제작, 이용	㉣
III. 결론	
광고물의 형태,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① 의미가 명확한가?	㉠을 '현수막의 과도한 부착에 의한 도로 경관 침해'로 수정해야겠어.
② 추가할 내용은 없는가?	㉡의 하위 항목에 '도로의 불법 입간판 단속 강화'를 추가해야겠어.
③ 글의 통일성을 지키고 있는가?	㉢을 삭제하여 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겠어.
④ 항목을 타당하게 설정하였는가?	㉣을 'II-1'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겠어.
⑤ 논지의 흐름이 일관적인가?	㉤을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수정해야겠어.

10. (가)에 들어갈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공익 광고 문구 중,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 보 기 >
- 그림의 내용을 충실히 살릴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완곡하게 행동을 권유할 것

- ① 생명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안전벨트는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줄입니다. 뒷좌석의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시다.
- ② 즐거운 여행지로 가시는 중이십니까? 잘못하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앞좌석의 안전벨트는 선택이 아닙니다.

- ③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여행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④ 뒷좌석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뒷좌석에도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⑤ 편안함을 위해 안전벨트를 안 매셨습니까? 잠깐의 편안함이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만이 행복을 보장합니다.

11.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우리말의 부정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이나 '않다'로 표현되는 '안 부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못'이나 '못하다'로 표현되는 '못 부정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지 다음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발표해 보세요.

ㄱ. 장빈은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했다.
 ㄴ.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도,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ㄷ.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많은 준비를 했다.
 ㄹ. 우종은 100m 기록을 14초 이내로 당기고 싶지만, 아직은 달성하지 못했다.
 ㅁ. 12시까지 고향집에 꼭 가야 하는데, 폭설이 내려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 ① ㄱ - 동작 주체의 의지가 반영될 때, '안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 ② ㄴ - 부정하는 대상이 객관적인 사실일 때, '안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 ③ ㄷ - 말하는 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안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 ④ ㄹ - 동작 주체의 능력이 부족할 때, '못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 ⑤ ㅁ - 외부의 상황이 원인일 때, '못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12. <보기>의 괄호 속 단어 중, 문맥에 적절한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교육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면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 억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사회적 통합을 (지양, 지향)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을 교육의 힘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하게 (분리, 분화)된 조직·기능과 이질적인 요소들의 통합을 위하여 법과 공권력을 발동하기도 한다.

- | | |
|----------------|----------------|
| ① 통제 - 지양 - 분리 | ② 통제 - 지향 - 분화 |
| ③ 통제 - 지향 - 분리 | ④ 억제 - 지양 - 분화 |
| ⑤ 억제 - 지향 - 분화 |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 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II」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아침엔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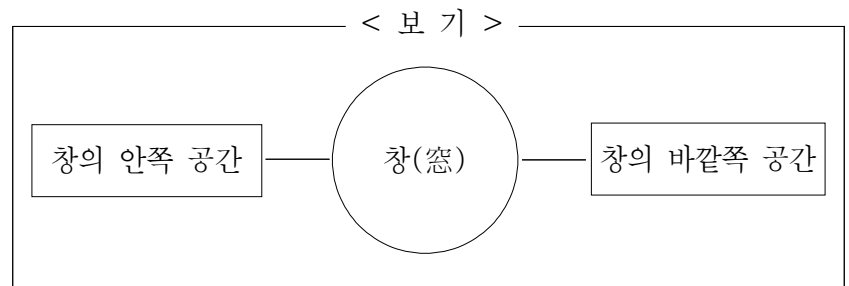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그리곤 당신들의 유리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창문, 창문……
창문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골의 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창닦이의 편지」 -

13. (가)~(다)를 <보기>에 따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화자는 (다)와 달리, 창의 안쪽 공간에 있다.
- ② (가)의 바깥쪽 공간은 (나), (다)와 달리, 사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창은 (가), (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
- ④ (나)의 화자는 (가), (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에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⑤ (가), (나)의 창은 (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사물의 속성을 나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시키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 ⑤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다.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 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선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문정희, 「성에꽃」 -

- ① <보기>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나)와는 달리, <보기>에서는 '성에꽃'의 순간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③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이 아름다운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와는 달리, (나)에서는 '성에꽃'을 보면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다.

16.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복적 행위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예찬적인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격 결정을 자유 시장 기구에 맡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도 때로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수가 있다. 이렇게 정부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가격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가격 통제라고 한다. 조세 부과가 시장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키는 간접적인 규제라면, 가격 통제는 시장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막으면서 정부가 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규제이다. 이런 가격 통제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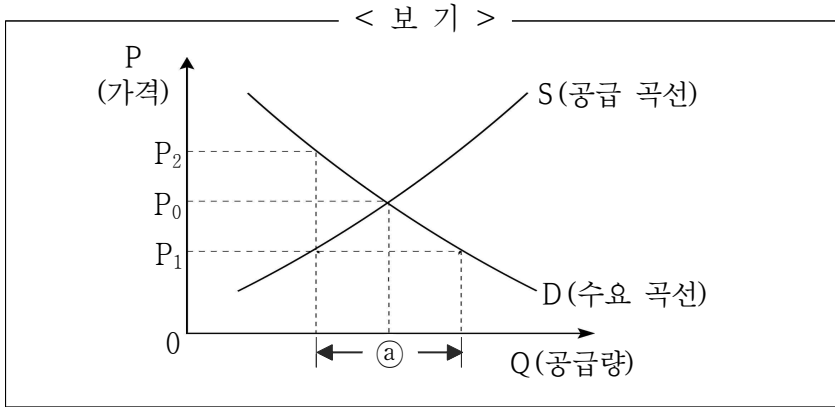
상품 부족으로 물가가 치솟을 때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데, 이 제도를 최고 가격제라 하고 이때 정한 가격을 최고 가격이라 한다. 최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너무 높을 때 설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균형 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생겨 소비자들은 상품을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없다. 최고 가격과 균형 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최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상품을 구입하려 하기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한편 최고 가격제와는 반대로 정부가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를 최저 가격제라 한다. 최저 가격제를 설정하는 취지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농산물 가격 지지 제도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최저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될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최고 가격제하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배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착순 방식과 배급제이다. 선착순 방식은 먼저 오는 소비자에게 순서대로 상품이 떨어질 때까지 판매하는 방식이고, 배급제는 각 소비자에게 배급표를 나누어 주고 그 배급표만큼 상품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선착순 방식과 배급제를 같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묶여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생산자들이 그 상품의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저 가격제하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쓸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의 예로는 정부가 상품에 대한 비축 기금을 이용하여 초과 공급량을 전부 사들이거나, 정부가 빈곤층에게 초과 공급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의 예로는 상품 생산자에게 상품 생산량을 줄이도록 권장하면서 가동하지 않은 설비에서 생산될 상품의 가치만큼만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

* 균형 가격 :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선에서 성립하는 가격. 이 균형 가격하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이라 한다.

17. 위 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P₀은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을 의미한다.
- ② P₁이 최고 가격으로 설정되면 ㉠만큼 공급 부족량이 발생할 것이다.
- ③ P₀ 이하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려는 이유는 P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 ④ P₂는 P₁이 최고 가격으로 설정되었을 때 암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 ⑤ P₁이 최고 가격으로 설정되었을 때 P₁과 P₀의 차이를 크게 하면 ㉠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다.

18.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최저 임금은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제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경영이 악화된 일부 기업이 최저 임금이 상승하여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자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 미숙련 근로자의 취업률이 크게 줄었다.

- ① 최저 임금이 높아질수록 근로자들은 기업에 취직하려고 더욱 노력하겠군.
- ②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설정해 놓은 최저 가격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최저 임금제는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 근로자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는 미숙련 근로자들과 주로 관련이 있는 제도겠군.
- ④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량은 증가하겠군.
- ⑤ 최저 임금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군.

19.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상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배급표를 나누어 주고 그 표만큼 상품을 살 수 있게 한다.

- ② 특정 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후 국민들이 그 상품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
- ③ 특정 상품의 생산자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권장하면서 생산자에게 그 손실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 ④ 특정 상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그 상품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한다.
- ⑤ 특정 상품에 대한 비축 기금을 마련하여 그 상품을 모두 사들인 후 빈곤층에게 상품권을 주어서 구입하게 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젊은 유생인 김생은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고 사랑에 빠진다. 그는 하인인 막동과 영영의 이모인 노파의 도움을 받아 노파의 집에서 영영을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영영이 거처하는 궁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 얼마 후 김생은 몰래 궁으로 들어가 영영을 만나 사랑을 나눈다.

밤이 다 끝나갈 즈음에 새벽닭이 꼬끼오 울며 날 밝기를 재촉하고, 멀리서 파루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입고 탄식하며 다급히 말했다.

㉠ “좋은 밤은 괴로울 정도로 짧고 사랑하는 두 마음은 끝이 없는데, 장차 어떻게 이별을 하리요? 궁궐 문을 한번 나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터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리요?”

영영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키며 흐느끼더니, 고운 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홍안박명은 옛날부터 있었으니 비단 미친한 저에게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서 이렇듯 이별하니, 죽어서도 이렇듯이 원통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낭군은 철석같은 마음을 가진 남아인데, [A] 어찌 소소하게 아녀자를 염려하다가 성정(性情)을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앞드려 바라건대, 낭군께서는 이별한 뒤에는 제 얼굴을 가슴속에 두어 심려치 마시고, 천금같이 귀중한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또 학업을 계속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운로(雲路)*에 올라 평생의 소원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또 바라옵니다!”

[중간 줄거리] 노파가 죽어 영영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진 김생은 학업에 전념한다. 3년 후 김생은 과거에 장원 급제를 하고, 삼일유가(三日遊街)*를 하게 된다.

김생은 얼큰하게 술에 취한지라, 의기(意氣)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갑자기 길가의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백 겹 정도 빙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희롱하는 나비와 미친 벌들이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곧 회산군(檜山君)댁이라고 하였다.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궁인(宮人)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다.

이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喪服)을 벗은 상태였다. 그 동안 부인은 마음 붙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 무늬 자리에 누이게 하였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닫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다.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다. 궁중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드리우고 있었는데, 주렴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남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획(藏獲)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다. “회산군 댁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획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 한 마디도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워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뜰어보니, 그 글에 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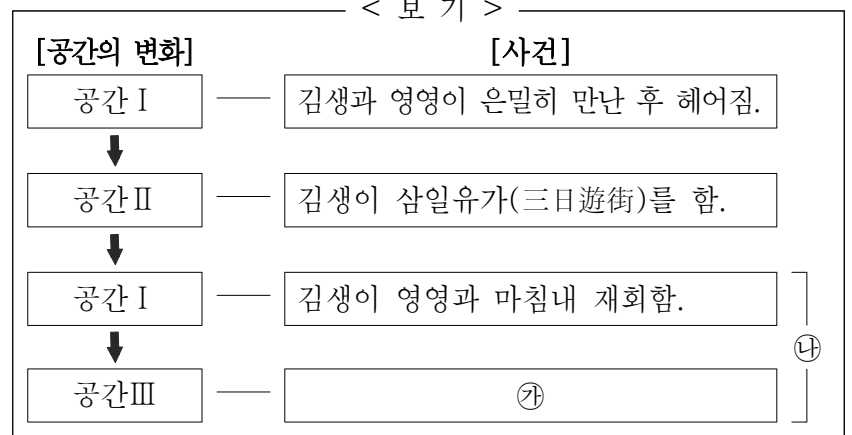
“박명한 첩 영영은 재배하고 낭군께 사뵐니다. ㉠ 저는 살아서 낭군을 따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해만이 남은 숨을 헐떡이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어찌 제가 성의가 없어서 낭군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은 얼마나 아득하고, 땅은 얼마나 막막하던지! 복숭아와 자두나무에 부는 봄바람은 첩을 깊은 궁중에 가두고, 오동에 내리는 밤비는 저를 빈방에 묶어 놓았습니다. 오래도록 거문고를 타지 않으니 거문고 갑(匣)에는 거미줄이 생기고, 화장 거울을 공연히 간직하고 있으니 경대(鏡臺)에는 먼지만 가득합니다. 지는 해와 저녁 하늘은 저의 한을 돋우는데, 새벽별과 이지러진 달인들 제 마음을 염려하겠습니까? 누각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면 구름이 제 눈을 가리고, 창가에 기대어 생각에 잠기면 수심이 제 꿈을 깨웠습니다. 아아, 낭군이여! 어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 작자 미상, 「영영전」 -

* 운로 : 높은 벼슬길.

* 삼일유가(三日遊街)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시험관과 선배 급제자와 친척을 방문하던 일.

20. <보기>는 위 글의 공간적 배경 및 사건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 I에서 회산군 부인은 영영의 심정을 이해하여 김생을 만나게 했군.
- ② 공간 I은 영영이 거주하는 장소로, 김생과 영영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고 있군.
- ③ 공간 II에서 김생은 영영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행동을 꾸몄군.
- ④ 공간 III은 김생의 집으로, ㉠에는 김생이 영영의 편지를 읽는 내용이 들어가야겠군.
- ⑤ ㉠은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군.

2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에는 설의적인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 ② [A]와 [B]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경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A]와 [B]는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당부의 어조를, [B]에서는 비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다.
- ⑤ [A]는 상대방의 미래를 축원하고 있고, [B]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22. ㉠에 나타난 김생의 심정이 가장 잘 형상화된 것은? [3점]

- ① 등불은 가물가물 낮게 두른 병풍 속에 / 눈물진 이 몸을 위로할 이 누구던가? / 즐겁구나 이 밤에 피리 불어 봄은 오고 / 쌓이고 쌓인 한을 후련히 가져주네.
- ② 하루는 균등하게 열두 때로 나뉘었으니, / 어느 날 어느 때인 들 임 그리지 않았으리. / 언제나 그대를 만날 수 있을까 시름타가, / 깊은 한 맺힌 채 이 세상을 이별하네.
- ③ 저승길이 촉박하여 애처롭게 떠난다오. / 바라건대 임이시여 저버리진 마옵소서. / 슬프다 우리 부모 나를 짝 지우지 못하셨네. / 아득한 저승에서 원한만이 맺혀 있으리.
- ④ 고궁의 꽃과 버들은 새로이 봄빛을 띠었는데, / 호화롭던 오랜 옛일 자꾸만 꿈속에 드네. / 오늘 저녁 옛 자취를 찾아와 노니, / 슬픈 눈물이 절로 흐름을 금하지 못하네.
- ⑤ 등불 꺼진 사창(紗窓)에 달이 기우니, / 견우와 직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이별하네. / 좋은 밤엔 일각도 천금만큼 귀하니, / 두 즐기 이별 눈물에 온갖 한이 사무쳤네.

23. ㉠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1점]

- ① 설상가상(雪上加霜) ② 진퇴유곡(進退維谷)
- ③ 좌고우면(左顧右盼) ④ 좌불안석(坐不安席)
- ⑤ 전전반측(輾轉反側)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독립된 것으로 여겼다. 또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뉴턴의 고전 역학이 자리 잡고 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지구와 같은 물체는 다른 물체를 끌어당겨 중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력이란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주장했다.

뉴턴의 고전 역학에 따르면, 중력이 미치는 범위(중력장) 내에서는 빛이 직선 경로를 따라 전파된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장 내에서 빛은 휘어진다고 주장했다. 중력장 내에서 빛이 중력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어떤 물체든 그것이 공간에 실재하면 그 물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휘게 된다고 가정했다.

그렇다면 태양이나 지구 등과 같은 무거운 행성들도 그 무게 때문에 주위의 3차원 공간을 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빛이 이 행성들 부근을 지날 때에는 직진하던 진로가 조금 틀어지게 된다.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가설은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 이끄는 관측대에 의해 입증되었다. 1919년 5월 29일 지구 남반구에서 일어난 개기일식을 관측하기 위해 에딩턴의 관측대는 브라질의 수브랄과 서아프리카에 있는 프린시페라는 섬으로 떠났다. 관측대는 면밀한 관측을 통해 태양 뒤의 먼 곳에서 오던 빛이 태양 주위에서 휘며 그 휘는 정도가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200여 년을 지탱해 온 뉴턴의 중력 법칙이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중력을 아인슈타인의 견해처럼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간주하면 중력장 안에서는 시간도 팽창하게 된다. 이것은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똑같은 빛의 신호가 주어졌다고 할 때 중력장이 없는 영역과 중력장이 있는 영역에서 빛의 경로는 서로 다르다. 즉 중력장이 없는 영역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 중력장이 있는 영역에서는 빛이 휘게 되어 도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 태양계 너머 우주에서는 시간의 지체가 더 크게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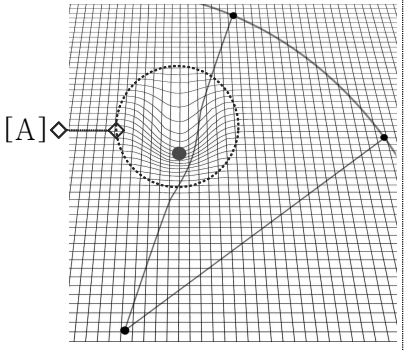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공간과 시간의 휘어짐’이라고 정의했다. 우리 태양계는 중력장이 약하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휘어짐이 아주 미미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각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뉴턴의 역학 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 이론적 틈새를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와 달리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질이 있는 태양계 밖의 우주 공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거기서는 뉴턴 역학은 무용지물이다. 바로 이 때문에 아인슈타인으로 인해 인간의 감각이 확대되고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24. 위 글은 아인슈타인의 자료집에 실린 글의 일부이다. 위 글이 수록된 부분의 소재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력장 이론과 우주 형성의 관계
- ② 중력장 가설을 입증하려고 한 실험 과정
- ③ 중력에 대한 독창적인 개념과 이론의 제시
- ④ 중력장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물리학의 여러 분야
- ⑤ 끊임없는 관찰과 실험 과정을 통해 정립한 우주의 의미

25. 위 글과 <보기 1>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발표 수업을 하기 위해 <보기 2>와 같이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1 > —

<p>[자료 I] 중력장과 빛의 전파</p> 	<p>[자료 II]</p> <p>아인슈타인 이후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크게 변화하였다. 즉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으로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 과학자 ○○○의 발언</p>
--	--

— < 보기 2 > —

<아인슈타인 이론과 뉴턴 이론의 관계>

- 위 글의 내용을 제시하며,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개념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①
- 위 글의 내용을 제시하며, 태양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뉴턴 이론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한다. ②

< 아인슈타인 이론의 주요 내용과 의의 >

- 위 글과 [자료 I]을 제시하며, [A]에서 빛의 속도는 변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③
- 위 글과 [자료 II]를 제시하며, 아인슈타인이 기존의 인식을 깨고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상호 작용의 관계로 파악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④
- 위 글의 내용을 제시하며,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 우주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⑤

26.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보아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매우 무거운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② 관측이 쉽지 않은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③ 운동 형태가 가변적인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④ 특수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⑤ 성격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판적 사고란 주어진 ㉠틀에 따라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슨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의식하면서 사고하는 행위이다. 즉, 어떤 사고를 할 때 무슨 사고를 했는지, 그 사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끊임 없이 스스로 묻는 반성적 사고인 것이다. 반성적 사고를 통해 획득된 지식은 상황에 맞도록 변형, 결합, 분석, 종합할 수 있는 상황 적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성적 사고의 체화(體化)를 통해 궁극에 도달하면 창의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제 반성적 사고란 무엇인지, 그 효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다음 덧셈에서 알파벳 문자는 각각 무슨 숫자를 나타내는가? (단, 각 알파벳 문자는 0에서 9 사이의 어떤 수이다.)

[덧셈식 1]	[덧셈식 2]
CD	LETS
+ DX	+ WAVE
DXD	LATER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덧셈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덧셈식 1]을 푼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문제를 푼 사람들의 사고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은 대체로 반복적인 덧셈 경험을 토대로 “일의 자리 두 수를 더하면 그 수는 18을 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후, 이것을 통해 “일의 자리 두 수를 더하면 십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다.”라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즉, 암기하여 기계적으로 덧셈 계산을 반복한 사람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반성적 사고를 한 사람이 문제를 푼 것이다.

[덧셈식 2]는 [덧셈식 1]의 난이도 수준을 대폭 높인 응용문제이다. 반성적 사고를 통해 [덧셈식 1]을 푼 사람은 아마도 [덧셈식 2]도 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지식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체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덧셈의 지식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또는 명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해도 그것이 수동적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그 반성적 사고의 체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원리의 능동적 발견이 용이하지 못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복잡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헤아리지 못하고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단순히 반성적 사고로 얻은 지식이나 원리의 이해만을 가지고는 활용 가능성이 극대화된 지식을 산출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의력을 위해서는 먼저 유사 응용문제 풀이를 반성적 사고 속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반성적 사고의 체화 단계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영역에서 습득한 원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에다 적용할 수 있는 ㉡영역 전이적 통찰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 지식의 차원을 넘어 반성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푸는 동시에, 그 반성적 사고를 체화하여 다른 영역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 때 창의력을 얻을 수 있다.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비판적 사고는 사고의 내용, 목적 등을 끊임없이 묻는 반성적 사고이다.
- ② 창의적 사고는 유사 응용문제 풀이의 반복과는 관련이 없다.
- ③ 비판적 사고 능력의 유무는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준다.
- ④ 반성적 사고는 능동적으로 의식하며 사고하는 행위이다.
- ⑤ 반성적 사고를 통해 획득한 지식은 활용 가능성이 높다.

28. 위 글을 읽고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보기>와 같이 설계했을 때, 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학습 1단계 : 암기를 통한 지식 획득
○ 학습 2단계 : 원리 이해를 통한 지식 획득
○ 학습 3단계 : 영역 전이적 통찰력을 통한 지식 획득

- ① 학습 1단계에 있는 학생은 [덧셈식 1]과 [덧셈식 2]를 모두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② 학습 2단계에 있는 학생은 [덧셈식 2]는 풀지 못하더라도 [덧셈식 1]을 풀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③ 학습 3단계에 있는 학생은 [덧셈식 1]과 [덧셈식 2]를 모두 풀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④ 학습 1단계와 학습 2단계는 창의적 사고를 통한 지식의 획득 여부로 구분될 것이다.
- ⑤ 학습 2단계와 학습 3단계는 활용 가능성이 극대화된 지식의 획득 여부로 구분될 것이다.

2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훈련병들은 정해진 틀에 맞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었다.
- ② 이 작품은 석고로 만든 틀에 청동을 부어 만든 것이다.
- ③ 오누이는 얼굴 생김새가 한 틀에 박아 낸 것 같다.
- ④ 그는 황제로서의 위엄이 틀에 잡혀 있다.
- ⑤ 지은이는 나무 틀 위에 천을 덮었다.

30.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놀이 사고 시에 튜브가 없을 때는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아 튜브 대용으로 이용하라는 구조 지침을 보고 친구를 구해낸 학생
- ② 게코도마뱀이 발바닥에 있는 섬모를 이용하여 천장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연구하여 친환경 접착제를 개발한 과학자
- ③ 학교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실습 중에 미지근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어는 현상을 관찰한 과학도
- ④ 제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했던 어느 철학자
- ⑤ 영어 회화를 열심히 공부하여 외국인과의 대화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학생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광주 H 지역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일에 만족하며 살던 '나'는 어느 날 국장에게 지금이 언제라고 겁도 없이 이런 걸 만화라고 그려 냈느냐고 야단을 맞는다. 이튿날 낯선 사람들(그자들)에 의해 '나'는 텅 빈 사각형의 흰 방에 끌려가 앞으로는 잘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나온다. 그 후 코를 찌르는 듯한 이상한 독가스 냄새를 맡게 된다. 그리고 잡혀갔다가 나온 다음 날 새벽 비 오는 광장에서 '나'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죽은 시민들의 환영을 보게 된다. 그 후부터 나는 만화 그리기가 두려워지고 결국 신문을 그만 둔다. 나는 계속 독가스 냄새 때문에 강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인다.

밖으로 이내 뛰쳐나가 무작정 거리를 쏘다니다가 아무 버스 에나 올라탔지요. 휴일인데도 차안은 붐볐습니다. 프로 야구 결승전이 무등 경기장에서 있단나요.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 무수한 사람들의 손목이 하얀 고리형의 손잡이에 하나같이 나란히 꿰어져 있더군요. 그래요. 모두가 채포된 수인들이었어요. 차안에 갇힌 우리 모두는 팔목에 하얀 수갑이 채워진 채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한마디의 항변도 몸부림도 없이 묵묵히 압송되어져 가고 있었다구요. 썩어 문드러진 뱃가죽을 허영게 드러낸 채 시체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는 그 슬한 손들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또 독가스가 목을 짓눌러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도청 앞에 이르렀을 때 허둥지둥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휴일 하오의 거리는 한가로운 걸음의 행인들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린 편이었지만 비가 올 듯한 날씨는 아니었지요. 전일 빌딩 앞 횡단보도를 건너 수협 건물 쪽으로 갔습니다. 난 예의 그 계단에 서서 꽤 오랫동안 눈앞의 광장과 분수대를 우두커니 바라보았지요. 이날따라 광장 중앙의 분수대는 시원스레 물을 뿜어 물줄기의 낙하음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마약 임종하는 사람의 숨결처럼 나지막하면서도 집요하도록 끈질긴 소리였지요. 어찌 보면 지극히 평화스럽기만 한 그 광장의 풍경을 대하고 있으려니까 자꾸만 그 비 오는 날 밤, 바로 그 자리에서 보았던 소름 끼치는 광경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 다. 그것은 정말 환영이었을까.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 열결에 헛것을 보았던 것일까. 나는 북적이는 한 길에 서서 여전히 어수선하고 흥흥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차량의 행렬이 분주히 스쳐 지나가고 시가지의 이 골목 저 골목으로부터 행인들이 개미떼처럼 구물구물 기어나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선 수용소 막사의 번호판만 같은 숫자표를 달고 자신들을 실어갈 시내버스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리로 우루루 몰려가곤 했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미친 듯 호루라기를 불어대기라도 하듯 저마다 어깨를 밀고 부딪치며 쫓기듯이 허겁지겁 차에 오르고 있는 시민들을 붙잡고 나는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해 오월, 바로 저 광장을 돌아 기다랗게 열을 지어 사라져 버린 슬한 사람들의 행방을 행여 알고 있느냐고. 선연하도록 붉고 고운 꽃이 파리를 입에 물고 그들은 대관절 어디로 가버린 것이냐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아무도 돌아오지 않느냐고. 어째서 해남택 늪은이의 외아들은 아직까지 소식조차 알 수 없는 거냐고.....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해 보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 오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꼬박 이틀을 물만 마시며 누워 있었습니다. 입

을 잔뜩 벌리고 꿈쩍없이 누워 있어도 호흡이 막혀 오고 목구멍에서 바람이 새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지독한 냄새는 쓰러져 누운 내 가슴 위에 올라타서 끊임없이 목을 조르고 또 졸랐지요. 눈알이 별장게 충혈되면서 이윽고는 목구멍 안까지 통통 부어 올라 침을 삼키기마저 어려워지더군요. 아아, 기어이 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무지무지하게 분하고 억울하다는 느낌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요. 난 그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허망하게 눈을 감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스케치북을 꺼냈지요. 실로 오랜만에 그려 보는 만화였습니다. 나는 거기에 그 비 오는 날 밤의 무서운 광경을, 꽃잎을 온몸에 붉게 붙인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을 쓱쓱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자와 못을 찾아내어 표지판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썼 습니다. <저는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독가스와 독극물로 인해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 주십시오. -단식 사흘째>

...(중략)...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로 우체국 앞에 나갔지요.

<.....저를 살려 주세요.-단식 나흘째>

그 다음날도 역시 그리로 나갔습니다. 닷새째가 되는 그날까지도 난 전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채로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날 오후에 혼자 표지판을 치켜들고 서 있으려니까 바로 그자들이 나를 데리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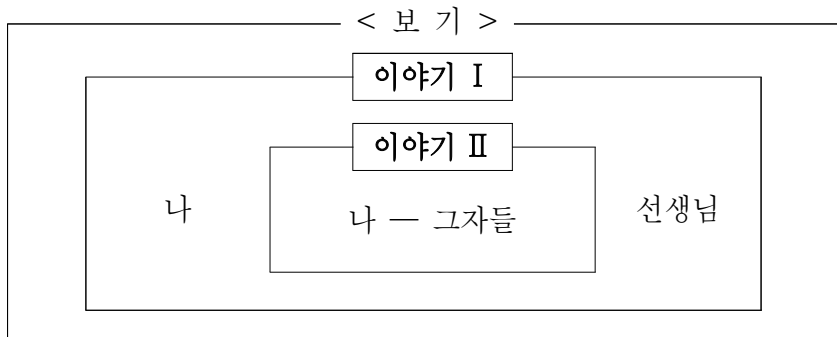
자아. 이것뿐입니다. 선생님이 내게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모두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더는 계속하지 않을 거라구요. 으흐흐. 하지만 말예요, 선생님. 꼭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게 있기는 합니다. 저, 말이죠. 나는 다시 만화를 그릴 수가 있을까요? 차를 대지 않고 서도 그 빌어먹을 놈의 직선을 예전처럼 쓱쓱 그려낼 수 있겠느냐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 독가스, 지긋지긋하고 끔찍스러운 이 독가스 냄새는 대관절 어디서 어떻게 꽃가루같이 폴폴 날아오는 것일까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하필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난 모르겠다니까요, 선생님.

- 임철우, 「직선과 독가스-병동에서」 -

3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작품 속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작품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각각의 인물들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배경과 인물의 심리를 대비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과거를 회상하듯 서술하여 사건 당시 서술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2. 위 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할 때, 위 글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야기 I의 '나'와 이야기 II의 '나'는 동일한 인물이다.
- ② 이야기 II에서 느낀 '나'의 갈등이 이야기 I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③ 이야기 I과 이야기 II는 각각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 ④ 이야기 II의 '그자들'은 '나'에게 적대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 ⑤ 이야기 II는 이야기 I의 '나'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다.

33. ㉠과 <보기>를 참고하여,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환각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작가는 소설에서 감각적인 인식의 차원을 넘어선 환각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환각적인 요소에는 환영(幻影), 환청(幻聽), 환후(幻嗅) 등이 있다. 이런 환각적인 요소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 ① 인물이 지향하는 세계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② 인물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③ 인물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 ④ 현실에 대해 인물이 저항 의지를 포기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⑤ 현실과 대결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놀란 인물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4. ㉠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불온한 사상 | ② 나태와 안일함 |
| ③ 직업에 대한 타성 | ④ 시대적 제약과 억압 |
| ⑤ 비양심적인 윤리 의식 | |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상학(Ikonographie)'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림'이라는 뜻의 'ikon'과 '묘사'라는 뜻의 'graphein'의 합성어이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림 묘사'가 된다. 도상학은 작품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를 밝히는 분석 방법으로, 그림이 그려진 당시의 사회·경제·역사적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특성을 중시한다.

도상학적 해석 방식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은 어빈 파노프스키라는 독일의 미술사가다. 그가 체계화한 도상학은 세 단계로 ㉠ 나뉜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 <금의 무게를 다는 여인>에 이를 적용해 보자.



파노프스키가 말하는 도상학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 그림 속 에 보이는 것을 묘사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인물의 포즈, 사물이 배치된 상황, 색채와 빛의 방향까지 상세히 묘사하는 것이다. <금의 무게를 다는 여인>을 보면, 부드러운 빛이 창으로 흘러들어온다. 양탄자로 반쯤 ㉢ 덮인 책상 위에 보석함이 있다. 보석함 안에, 그리고 책상 위에는 보석들이 ㉣ 놓여 있다. 그 앞에서 서 있는 여인은 오른손으로 저울을 들고 있다. 창문 쪽에는 거울인 듯한 물건이, 여인의 등 뒤로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림에 그려진 내용을 도상적 전통과 관례를 통해 파악한다. 즉, 소재로 ㉤ 쓰인 대상이 신화나 역사 속의 특정 인물은 아닌지, 또 미술의 역사상 관습적으로 그려져 온 어떤 장면과 연관되지는 않는지를 밝힌다. 이 단계에서는 ㉦ 회화에서 관습적으로 쓰여 온 제재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한 무리의 인물들이 특징적인 배열과 자세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그림을 보고, 그것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것임을 알아내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다시 베르메르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자. 여인의 뒤쪽에 걸려 있는 그림의 제재는, 서양 미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이다.

그렇다면 <금의 무게를 다는 여인>과 <최후의 심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물음을 통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의 과제는 그림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다. 여인이 든 저울과 최후의 심판 사이의 연관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의 메시지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화가의 종교적, 도덕적 경고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은 책상 위의 보석들인데, 이것들은 속세의 부를 상징한다. 서양 미술의 전통에서 16세기 이래로 보석과 거울은 삶의 허무함의 상징 중 하나였다. 여인이 들고 있는 텅 빈 저울, 테이블 위의 보석,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은 모두 인생의 무상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 그림은 "속세의 물질적 욕심에 눈을 돌리지 말고 네 영혼이 신의 저울에 올려질, 마지막 심판 날이 올 것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베르메르는 금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통해서 신의 정의와 인간의 삶의 무상함을 ㉦ 보이려 했던 것이다.

35.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ㄱ. 대상을 구체적 예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ㄴ. 어원을 밝히면서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ㄷ. 여러 가지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ㄹ. 단계적 순서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있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 ④ ㄴ, ㄷ | ⑤ ㄴ, ㄹ | |

36. 위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과 ㉡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을 고려해 보아야 화가가 ㉠에 담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 ② ㉡을 중시한 화가는 사물의 실제 형태를 왜곡하여 ㉠으로 형상화했을 것이다.
- ③ ㉡에 얽매이지 않고 ㉠을 구상하고 배치한 그림이 도상학적으로 해석하기 쉽다.
- ④ ㉡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의 형태가 빚어낸 감각적 느낌을 설명하려는 것이 도상학이다.
- ⑤ ㉡을 그림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화가들은 ㉠에 독창적인 회화 기법을 발휘했다.

37.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접미사 ‘-이’의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보 기 >

사동 접미사에도 ‘-이’가 있고 피동 접미사에도 ‘-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동사(깎이다, 닦이다 등)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다. 그러므로 이런 동사들은 문맥을 통해 구별해야 한다. 참고로, 사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피동사는 그렇지 않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도상학의 단계’에 따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신사임당, 「수박과 들쥐」

첫 번째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박의 열매와 휘어진 줄기가 모두 둥근 형태를 보이고 있군. ① ○ 부부가 금슬 좋게 살라는 의미로 한 쌍의 나비가 어울리는 모습을 그려 놓았군. ②
두 번째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꽃, 곤충 등 작은 생명을 그린 초충도(草蟲圖)가 조선 시대에 많이 그려진 점을 참고해서, 이 그림의 제재와 연관된 관습을 알아보아야겠어. ③
세 번째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가 많은 수박, 새끼를 많이 낳는 쥐를 볼 때, 이 그림은 주제가 다산(多産)이었을 거야. ④ ○ 신사임당이 표현하려 했던 것은 작고도 풍요로운 자연 세계의 생명력이었을 거야. ⑤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이지마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닭은 곳 아즐가 닭은 곳 작은 서울 사랑하지마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의기보다는 아즐가 여의기보다는 길쌈 배 버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피시란테 아즐가 피시란테 우리곰 좃아가겠습니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1연>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넓은지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배 내어 아즐가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아내 아즐가 네 아내 바람난 줄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떠날 배에 아즐가 떠날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꽃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배를 타면 아즐가 배를 타면 꺾으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3연>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나) 이 몸이 여자 되어 도로 백년 어려워라. 문 밖에를 아니나고 안방에서 나서 자라 백년가약 정할 적에 연분(緣分)을 따라가서 불경이부(不更二夫) 굳은 언약 철석(鐵石) 같이 믿었더니 무심(無心)한 한 통의 ㉠ 편지 어디로 온단 말가. 편지 중의 여러 가지 사정(事情) 읽어 보니 아득하다. 회답(回答)을 쓰려하고 붓을 들고 생각하니 심신(心身)이 황홀하여 말조차 그쳤도다. 어화 편지 내용 중에 군자(君子) 말씀 끝이 없다. 용렬(庸劣)한 이 내 거동(舉動) 무슨 태도 가졌기에 이대도록 눈에 들어 병(病)조차 들단 말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어찌 하여 잠잠한가. 다른 곳 가기 전에 무심(無心)이 있지 말고 우리 서로 어렸을 때 한 가지로 놀았으니 날과 언약한 일 없이 혼자 마음 무슨 일고. 삼삼한 이 내 마음 생각하니 후회로다. 일이 이미 이러하니 무슨 묘책 있을까. 광대(廣大)한 천지간에 절색가인(絶色佳人) 무수한데 나 같은 아녀자야 어느 곳에 없을손가. 사세(事勢)가 이러하니 이도 또한 하늘의 뜻이라. 병(病)이 실로 들었으면 마음을 마지못해 하오. 흐르는 이 세월에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인생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뼈는 썩어 황토 되고 살은 썩어 물이 된다. 죽은 나를 찾아와서 이런 사정 하오리까. 물로 이룬 마음이라 목석(木石)이 아니거든 이러한 이 인생은 설마 죽게 하리. 그대는 대장부로 천금 같은 귀한 몸을 이 내 일신 위하여서 병이 들어 누웠으니 심정을 허비하다 가련이 죽게 되면 억울한 저 혼백이 내 탓을 삼으리라. 백년을 못살거든 남의 명(命)을 끊게 하라. 이러나 저러나 그대 사정 바라리요. 연분이 있고 보면 자연히 만나리라. 상사(相思)로 깊이 든 병(病) 다 풀치고 기다리소. 금월 모일(某日) 명월야(明月夜)에 아무쪼록 뵈오리다.

- 작자 미상, 「상사회답곡(相思回答曲)」 -

(다) 임진년 왜적을 피하여 북으로 가던 참에 아내는 마침 임신 중이어서 몹시 지친 몸으로 단천에 이르러 아들을 낳으니,

그때가 칠월 초이렛날이었다. 이틀이 지나서 왜적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순변사 이영은 후퇴하여 마천령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님과 아내를 이끌고 밤을 새워 고개를 넘어 임명역에 이르렀는데, 아내는 기운이 다하여 말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었다. 그때 같은 성씨인 허행이 우리를 맞이해 주어서 해도로 피난을 했으나 거기서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산성원에 사는 백성 박논역의 집에 도착했다.

그때가 초월흘날 저녁이었는데, 아내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기어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중략)...

슬프다. 그때 태어난 아들은 젖이 없어 끝내 일찍 죽고 말았다. 처음에 난 딸아이는 자라서 진사 이사성에게 시집가서 아들 딸 하나씩을 낳았다.

기유년에 내가 당상관으로 진급하여 형조참의로 임명되니 법도에 따라 아내를 숙부인으로 추봉하게 되었다. 아내의 맑은 덕행으로도 오래 살지 못하고, 게다가 뒤를 이을 아들도 없으니, 하늘의 도리조차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가난할 때 아내와 마주앉아 짧은 등잔 심지를 돋우고 반짝거리는 불빛에 밤을 밝히며 책을 읽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싫증을 내는 기색을 보이면 아내는 반드시 농담 삼아 “케으름 피우지 마세요. 저의 부인첩이 늦어집니다.”라고 말했는데, 18년 뒤에야 다만 한 장의 **㉠ 빈 교지***를 그녀의 영전에 바치게 되었을 뿐, 그 영화를 누릴 이는 나와 귀밑머리를 마주 푼 짝이 아닐 줄을 어찌 알았으랴. 만약 저승에서나마 이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 허균, 「망처숙부인김씨행장(亡妻淑夫人金氏行狀)」 -

* 교지 : 조선 시대에, 임금이 사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던 인사에 관한 명령서.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
- ③ 상황에 대한 화자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④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에 화자의 마음을 투영하여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동일한 시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음악적 효과가 드러나 있다.
- ② (나)에는 비유적인 표현과 설의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③ (가)에는 (나)와 달리, 공간적 배경이 부각되어 시적 정황이 잘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가)와 달리,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는 말투가 드러나 있다.
- ⑤ (나)에는 (가)와 달리,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다르게 나타나 있다.

4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 : 서술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 ② ㉠ :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
㉡ : 서술자가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
- ③ ㉠ : 화자의 비극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것
㉡ : 아내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하는 것
- ④ ㉠ :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원인
㉡ : 서술자가 아내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원인
- ⑤ ㉠ : 화자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
㉡ : 서술자에게 안타까운 정서를 부각시키는 계기

42. (가)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쌈 베’는 화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② ‘우리곰 좃아가겠습니다’는 화자가 이별을 거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네 아내 바람난 줄 몰라서’는 음란한 세태를 비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 ④ ‘사공’은 화자와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⑤ ‘배를 타면 꺾으리이다’에는 미래에 나타날 임의 행동을 경계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43. (다)의 서술자가 <보기>와 같은 시를 창작했다고 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오호라 그대의 꽃다운 자태는
가시덤불 아래 누워 있고
그대는 부인첩을 받고도 웃을 줄을 모르누나.
내 마음이 물이라면 세상이 잠기겠네.
만삭의 몸으로 임진년 조충에 이리저리 내몰리다
기운이 다해 먼 길 떠난 그대여
아기에게 젖 한 번 제대로 못 물리고
울며울며 그대가 떠나갈 때,
나도 울었고 하늘도 울었소.
그대와 달을 보며 맺었던 첫날밤 약속은
먼지 마냥 날아가 버렸소.
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대가
구름 낀 하늘 위의 별을 바라듯 진정으로 그림소.

- ① <보기>는 (다)와 마찬가지로 사별(死別)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보기>는 (다)와 마찬가지로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③ <보기>는 (다)와 달리, 아내의 성품을 추리할 수 있는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는 (다)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는 (다)와 달리,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전학자들의 최종 목표는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세포 내 차원에서 유전병을 치료하는 것을 ‘유전자 치료’라 일컫는다. ‘유전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DNA의 특성을 이용한다.

DNA는 두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그런데 이 두 가닥에 늘어서 있는 염기들은 임의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쪽에 늘어난 염기에 따라, 다른 쪽 가닥에 늘어난 염기들의 배열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한쪽에 A 염기가 존재하면 거기에 연결되는 반대쪽에는 반드시 T 염기가, 그리고 C 염기에 대응해서는 반드시 G 염기가 존재하게 된다. 염기들이 짝을 지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선택적 특성을 이용하여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 찾아낼 수 있다.

유전자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는 DNA 한 가닥 중 극히 일부이다. ‘프로브(probe)’라 불리는 이 DNA 조각은, 염색체상의 위치가 알려져 있는 이십여 개의 염기들로 이루어진다.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으로 인해, 프로브는 자신의 염기 배열에 대응하는 다른 쪽 가닥의 DNA 부분에 가서 결합할 것이다. 대응하는 두 가닥의 DNA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교잡’이라고 일컫는다. 조사 대상인 염색체로부터 추출한 많은 한 가닥의 염색체 조각들과 프로브를 섞어 놓았을 때, 프로브는 신비스러운 정도로 자신의 짝을 정확하게 찾아 교잡한다.

두 번째 도구는 ‘겔 전기영동’이라는 방법이다.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핵산 등 많은 분자들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전기장 속에서 각 분자마다 독특하게 이동을 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분자량, 각 물질의 전하량이나 형태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전기영동법이다. 이를 활용하여 DNA를 분리하려면 우선 DNA 조각들을 전기장에서 이동시키고, 이것을 젤라틴 판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분리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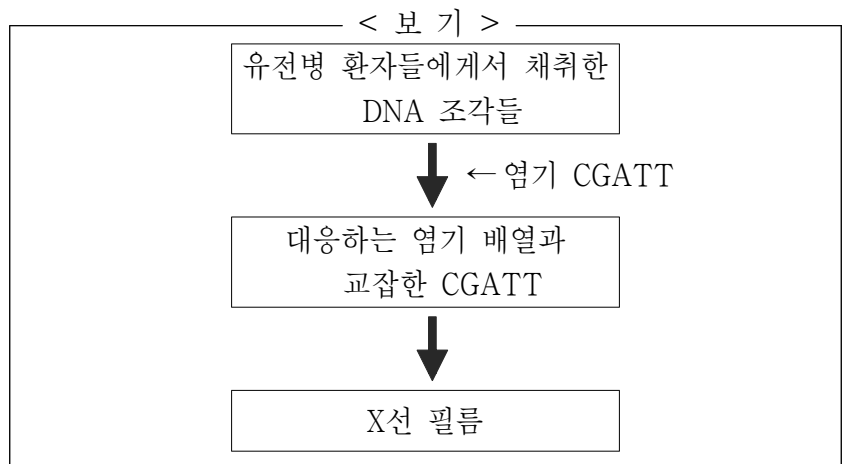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 도구들을 갖추고서, 유전학자들은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추적하는 데 나섰다. 유전학자들은 먼저 겔 전기영동법으로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의심되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존재하는 프로브를 건강한 사람에게서 떼어내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서 떼어낸 프로브에 방사성이나 형광성을 띠게 하였다. 그 후에 유전병 환자들에게서 채취한 DNA 조각들과 함께 ㉡ 교잡 실험을 반복하였다. 유전병과 관련된 유전 정보가 담긴 부분의 염기 서열이 정상인과 다르므로 이 부분은 프로브와 교잡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교잡이 일어난 후 프로브가 위치하는 곳은 X선 필름을 통해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이로써 DNA의 특정 조각은 염색체상에서 프로브와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진보를 이룬 것 같지 않지만, 유전자 치료는 최근 들어 공상 과학을 방불케 하는 첨단 의료 기술의 대표적인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DNA 연구 결과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절망적이라고 여겨 온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44.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의 종류와 기능
- ② 유전자 추적의 도구와 방법
- ③ 유전자 치료의 의의와 한계
- ④ 유전자 치료의 상업적 가치
- ⑤ 유전 질환의 종류와 발병 원인

45.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염기 CGATT’는 프로브에 해당한다.
- ② ‘염기 CGATT’는 GCTAA라는 염기 배열과 교잡한다.
- ③ ‘X선 필름’ 위에 놓는 이유는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 ④ 겔 전기영동법으로 ‘유전병 환자들에게서 DNA 조각들을 채취’했을 것이다.
- ⑤ ‘유전병 환자들에게서 채취한 DNA 조각들’은 방사성을 띠거나 형광성을 띠고 있다.

46.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색출(索出)할 ② 반출(搬出)할 ③ 배출(排出)할
- ④ 각출(釀出)할 ⑤ 유출(流出)할

47. ㉡을 하는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약 프로브가 사라진다면, 이 부분은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②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지 않는 DNA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은 정상적인 유전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③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는 DNA가 발견된다면, 프로브가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④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는 DNA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이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⑤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지 않는 DNA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이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